특별기획 1

중국의 『국화와 칼』 인기로 본 일본문화 붐

궈롄유*

1. 시작하며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은 근년에 중국에서 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005년 이후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을 시작으로 많은 출판사가 차례차례 「국화와 칼」을 재판, 증쇄, 간행하였고, 2010년 현재 약 20여종(영문판도 포함)에 이르고 있다. 현재 모든 출판사의 인쇄부수에 대한 완전한 통계 데이터는 없지만, 상무인서관 발행 담당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상무인서관에서는 2005년에 「국화와 칼」 개정판이 발행되었고, 2006년에 이미 13만권을 인쇄할 정도로 판매가 호조였다고 한다. 「국화와 칼」 원작 영문판이 1946년에 간행된 지 이미 60년 이상이 지났고, 또 중국어 번역 초판본(뤼완허[呂万和]외 역, 1990년 6월, 상무인서관)이 발행된 이후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 미국인 문화인류학 연구자 루스 베네딕트의 일본인·일본문화론 「국화와 칼」은 왜 중국에서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본고에서는 특히 이 문제에 착안하여, 중국연구자의 논문 및 인터넷 블로그를 단서로 「국화와 칼」의 인기 배경, 또 여기에서 촉발된 중국의 새로운 일본에 대한 관심과 일본문화 붐 현상을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

* 북경일본학연구센터 교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국화와 칼」이 베스트셀러가 된 배경

「국화와 칼」이 급속하게 베스트셀러가 된 계기 중 하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2001년부터 매년 참배)에 대한 반발과, 중일간의 역사인식의 차이로 인해 일어난 중일관계의 긴장이라고 생각된다.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당연히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피해를 받은 아시아 여러 국가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 국민들은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고이즈미가) 전쟁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인은 전쟁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는다', '전쟁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등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것들이 도화선이 되어 고이즈미의 언동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되었고, 2005년 봄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 항의 데모가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정부 수뇌간의 상호 방문도 단절되었고, 양국의 국민감정이 상처받았으며, 중일관계가 현저히 냉각되었다.

일본인은 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왜 사죄하지 않는가, 왜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가 등이 당시 일반 중국인들의 솔직한 반응이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 국민은 '실은 우리들은 일본인을 잘 모른다', '눈앞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선은 일본인을 이해하고, 일본인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성격이나 사고양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일본에 대해 이해하기를 강하게 바라는 중국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중에, 문화상대주의 시점에 입각해서 쓰인 「국화와 칼」은 다시 중국인을 매료시키고, 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최적의 서적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국화와 칼」에서 중국인을 매료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루스 베네딕트가 제시했던 문화상대주의라는 시점 외에 일본인의 성격, 습속 내지 일본문화의 특징 등에 관한 치밀한 분석,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문화인류학적 방법론, 또 그 분석에 입각해 이끌어내어진 결론-특히 서양문화는 죄의 문화인 것에 비해, 일본문화는 부끄러움의 문화라고 하는 논단(論斷)-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어느 것이나 중국인의 일본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생각한다.

중국의 지방 유력지 중 하나인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본사는 광저우[広州])의 기자 천리(陳黎) 씨는 중국에서 「국화와 칼」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널리 읽혀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국화와 칼」의 유행은 일본보다 50년이나 늦어졌다. 말할 것도 없이 중일관계의 긴장이 매우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이외에도 몇 가지 요소를 더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사회 전체가 일본 관련 문제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땅히 되어 있어야 할 지식의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천리 「남방도시보」, 2006년 3월 27일)

3. 「국화와 칼」 현상을 둘러싼 논의

「국화와 칼」 현상에 대해 중국에서는 연구자는 물론이고, 일반 독자 사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교수 추이스광(崔世広) 씨는 현대 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국화와 칼」의 유효성을 높게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국화와 칼」이 간행된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다. 본서에서 제시된 일본문화에 관한 기본적 이론이나 시점은 현대일본문화나 일본인의 행동양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다. 「국화와 칼」은 일본민족과 일본문화의 성격(국민성)을 그려내는 데에 성공했다. (중략) 일본인의 조직원리이기도 한 「집단주의」와 일본인의 정신상태인 「부끄러움의 문화」를 분명히 드러내었다. (중략) 반세기 이상 지난 지금도 루스 베네딕트가 제시한 일본문화에 관한 기본원리나 관점은 반드시 시대에 뒤떨어진다고는 할 수 없으며, 현대일본문화나 일본인의 행동양식을 이해하는 데에도 가치가 있다. (중략) 중국인은 일본민족이나 일본문화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중략) 그것이 중국의 일본문화연구의 심화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일 양국민의 상호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새로이 「국화와 칼」이라는 명저를 진지하게 읽어야 한다(추이스광 「서문」, 2005, 탕샤오펑[唐暁鵬], 왕난[王南] 역 「국화와 칼」 화문출판사[華文出版社])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러한 생각에 대해 중국의 일본 사상사 연구자이며, 중국 사회과학원 외국문학연구소 교수인 쑨거(孫歌) 씨는 「남방도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보면, 이 책 속의 분석 대부분은 첫째로 매우 시대에 뒤떨어졌고, 둘째로 너무나 천박하다. 필경 일본어를 모르는 미국인이 쓴 것이다'(천리 「남방도시보」 2006년 3월 27일)라고 논평하고, 이 책의 현대일본이해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기자 천리 씨는 중국과 대조적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국화와 칼」이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후 일본은 루스 베네딕트가 쓴 당시의 일본과는 완전히 이질적이다'라고 분석하고, '이 책의 판매호조는 현재 중국인의 일본이해가 아직도 1946년의 단계에 멈춰있다는 증명이다'라고 논단하며, 쑨거 씨와 마찬가지로 이 책이 현재의 일본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천리 「남방도시보」 2006년 3월 27일)

한편, 칭화(淸華)대학 역사학계 준교수 리우샤오펑(劉曉峰) 씨는 아래와 같이 논평하고, 루스 베네딕트의 방법론이나 연구성과를 현대일본연구에 적용하는 것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 1945년 이래, 일본사회는 크게 변화했다. 정치면에서 미국의 압력 하에 전후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고, 전전(戰前)의 군국주의체제와 완전히 다른 국가 정치체제가 형성되었다. 경제면에서 1955년 이래 일본은 전쟁의 그림자에서 탈출하여 고도성장의 궤도에 올라 현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 문화면에서 경제 발전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어 기존의 촌락공동체 구조가 이미 해체되었고, 서구로부터의 국가관, 사회관, 가치관, 생활관 등이 일본사회 구석구석까지 침투했다. 이들 변화의 대부분은 실질적인 것들뿐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일본을 볼 때, 단순히 「국화와 칼」에 의존해서 일본을 관찰하는 것뿐이어서는 매우 불충분하다. 방법론적인 면에서 봐도 60여년 동안 인문사회과학영역의 연구는 크게 진보했다. 따라서 일본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좀 더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근래 중일관계를 둘러싸고 많은 복잡한 문제가 나타났다. 이들 문제의 해결책은 금방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해결할까를 사고하기 이전에, 전후 60년이나 지난 지금 일본인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일본인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선 명확하게 해야만 된다. 이들 문제에 대한 해답은 루스 베네딕트와 관계는 있어도, 루스 베네딕트의 대답 그 자체는 아닐 것이다. 저자 루스 베네딕트는 서양중심주의의 입장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했지만, 「국화와 칼」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는 어디까지나 서양인 연구자의 눈에 비친 일본밖에 없었고, 게다가 60년 전의 서양인 연구자의 눈에 비친 일본이었다. (중략) 60년 후, 『국화와 칼』의 유행은 동양인의 입장에 서고, 또 중국인의 입장에 선 일본론, 그리고 전후 60년 일본사회의 진화의 역사를 포함한 일본론의 탄생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이야말로 중국의 연구자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반성할 시기이다. (리우샤오펑 저 『일본의 얼굴(日本的面孔)』, p.119, 중앙편역출판사[中央編訳出版社], 2007년 8월)

또 리우샤오펑 씨는 중국의 일본연구가, 당면한 양국 교착상태의 타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비실용성에 불만을 표시했다.(위의 책)

이러한 현상 속에서, 2007년 10월 북경일본학연구센터는 '해외에서의 일본사상문화연구의 역사・현상・과제-『국화와 칼』 등의 해독을 중심으로'라는 테마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연구자들의 의견을 모아 사회에 발신하는 것이 이 심포지엄의 목표 중 하나였다. 『국화와 칼』(상무인서관 판)의 번역자를 비롯하여, 약 20여명의 연구자가 『국화와 칼』을 비롯한 서양에서의 일본연구의 문제의식, 방법론, 특징, 문제점 및 과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 2008년 12월 6일, 일본 류코쿠(龍谷) 대학에서는 '되살아나는 루스 베네딕트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국화와 칼』이 분쟁해결에 담당한 역할에 대해 보고되고 논의되었다.

4. 「국화와 칼」은 어떻게 읽혀졌는가?

앞에서 본 것처럼 『국화와 칼』이 중국에 상륙하고, 특히 베스트셀러가 되고난 다음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좋은 평가나 상찬(賞讃)의 목소리도 있었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렇다면 『국화와 칼』이 중국에서 어떻게 읽혀졌는가 하는 문제에 착안하여 이를 통해 『국화와 칼』이 일본문화의 이해와 중일관계 교착상태의 타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싶다.

잡지 『군사역사(軍事歷史)』(2002년 4호)에 중국 군사과학원 전략연구부 준교수 쉬샤오쥔(徐暁軍) 씨의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을 읽고」라는 논문이 게재되었다. 쉬샤오쥔 씨는 루스 베네딕트가 정의한 '부끄러움의 문화'에 대해 언급하고, '일본인은 왜 중국 침략 전쟁에 사죄하지 않는가, 또 독일이 제2차 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계대전의 피해국이나 피해자에게 사죄한 것에 비해, 일본의 수상은 오히려 A급 전범을 제사지내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왜인가, 등을 「국화와 칼」은 가르쳐 줬다'고 논하고 있다.(쉬샤오쥔, 2002, pp.78-79)

또 「상업문화(商業文化)」 2008년 제7호에 게재된 우한(武汉)대학 정치·공공관리학원 소속의 탕성빙(唐勝兵) 씨의 논문 「이문화 비교연구의 의의:「국화와 칼」을 읽고 느낀 점」에서는 아래와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 오랜 동안 우리들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을 발동시킨 것을 강조해 왔지만, 일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들은 분노와 의문을 느끼고 일본인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발동에 대해서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국화와 칼」의 분석에 대한 인용은 생략)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일본인의 표현 방식에는 문화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도, 문화가 이끌어낸 잔학적인 행위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일본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이문화 연구를 통해 일본문화의 단점을 명확하게 하고, 그 시정을 재촉해야할 것이다. 이 책(「국화와 칼」)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때가 상호 이해가 시작되는 때이다(탕성빙, 2008, p.89)

동시에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겠다.

장이궈(章益国) 씨는 「사회관찰(社会观察)」(2005년 제7호)에 수록된 「거리를 두고 「국화와 칼」을 읽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문장에서, 루스 베네딕트의 일본문화 특수성의 강조는 결과적으로 '전후 일본처리의 다른 가능성을 박탈한 것은 아닐까. 또 일본인의 전쟁에 대한 반성이 철저하지 못한 이유가 이 <미일 공모>의 일본 특수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지적하고, '우리들은 거리를 두고 「국화와 칼」을 읽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국화와 칼」은 일본의 전쟁 발동의 역사에 대한 해명이지만, 이 책 자체는 일본이 전쟁에 대해 철저하게 청산하지 않은 역사에 동의했기 때문이다'(장이궈, 2005, p.62)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 생각과 유사한 관점이 풍월랭오구(风月冷吴钩, 본명 자오저[焦哲])라는 저자가 작성한 블로그에 게재된 「「국화와 칼」 차기(箚記) 및 중일 관계에 대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관점」(2006년 5월 30일)에도 보인다. 전후 천황의 전쟁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미국의 정책을 언급하면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남겨진 히로히토(裕仁) 천황은 전쟁에 대해 책임이 있었고, 그대로 남겨진 일본의 정부기구도 전후에 일본이 점점 보수화되는 근원이 되었다. 즉 전후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철저하게 청산하지 않았던 것이 북동아시아의 불안한 정세를 가져오는 원흉이 되었고, 「국화와 칼」은 객관적으로 「악인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루스 베네딕트는 비난받는 입장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풍월랭오구, 2006)라고 「국화와 칼」을 비판하고 있다.

5. 나가며

이상 보고한 것처럼 중국에서는 「국화와 칼」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국화와 칼」의 해독을 통해 현재의 일본을 이해하고 중일관계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게 느껴진다. 「국화와 칼」 붐을 거쳐 중국인은 이전과 비교해서 보다 이성적으로 일본이나 일본인, 일본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번 「국화와 칼」에 대한 해석과 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현대 중국인의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투영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국화와 칼」 붐으로 인해, 현재 중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관심이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관련 서적의 대량출판이나 판매호조는 전례가 없을 정도이다. 사람들은 정치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일본문화, 역사 등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다.

최근 전후 일본 부흥의 역사를 여러 관점에서 고찰한 존 다우어 저 「패배를 껴안고」(08년 9월 삼련출판사[三聯出版社])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그 증거의 하나이다. 베스트셀러 랭킹 연속 1위 현상이 있고나서 2개월 후인 2008년 11월 28일, 중국의 일본연구자 전문가들이 참가한 「「패배를 껴안고」 학술좌담회」가 개최되었다(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와 삼련출판사 공동개최). 참가자는 중국어 번역자인 후보(胡博) 외에, 리웨이(李微), 쑨거(孫歌), 진시더(金熙德), 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오훙(高洪), 자오징화(趙京華), 추이스광(崔世広), 리우샤오펑(劉暁峰), 둥빙웨(董柄月) 등 중국의 대표적인 일본연구자 약 20명이었다. 논의의 내용을 보면, 서명 '껴안고'라는 용어의 깊은 함의-미일관계 구축과 관련, 일본의 전후민주주의 개혁의 수용 등-(후보), 저자의 전후 미국 극동정책에 대한 비판, 맥아쌀의 극동지역 공산주의에 대한 염려로 인해 형성된 북동아시아의 정치 구조가 중일화해 저해의 근본적 요인, 오키나와 문제의 누락, 미국의 양식 있는 지식인에게 미국의 패권주의를 반성하게 하는 책으로 높게 평가(쑨거), 또한 동경재판에 아시아인 재판관이 누락된 것과 이중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동아시아의 전후체제는 재판의 불철저성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지적(자오징화), 천황제의 보존은 전후 전쟁 청산에 영향, 주변 국가들의 염려(가오훙), 그리고 역사상 일본은 세 번 패배를 껴안았다(다이카개신, 메이지 유신, 패전), 강자와 손을 잡고 강해지는 것이 일본문화와 일본인 사고양식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지적(추이스광) 등, 여러 갈래에 걸쳐 있는데, 이 좌담회는 일본연구자가 이번 일본문화 붐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발신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일본학간(日本學刊)」 2009년 제1기)

한편, 「국화와 칼」 붐을 통해 지금까지의 중국인의 일본연구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일어나, 동시에 앞으로 중국의 일본연구가 보다 실용적이고, 일본 이해에 한층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요망이 일반 중국인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대비해 앞으로 중국에서의 일본연구의 미래상-과제, 방법론 등을 포함해서-을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 이 논문은 일본 류코쿠 대학 아프라시아 평화개발 센터 주최 '되살아나는 루스 베네딕트 국제 심포지엄' 및 한국 고려대학 일본연구센터 주최 '젊은 연구자 미래 구축 포럼 -동아시아 공동체와 일본연구-'에서의 보고를 수정, 가필한 것이다.

참고문헌

徐暁軍(2002)「読魯思・本尼迪克特的≪菊与刀≫(ルース・ベネディクトの「菊と刀」を読ん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で)」ㅣ軍事歷史』 4、pp.78-79.
章益国(2005)「跳出来看≪菊与刀≫(距離をおいてㅣ菊と刀』を読むべきだ)」ㅣ社会観察』 7、p.62.
陳黎(2006)「一本叫≪菊与刀≫的学術書還在暢銷≪菊と刀≫という学術書は依然ベストセラー)」ㅣ南方都市報』.
唐勝兵(2008)「跨文化比較研究的意義-読≪菊与刀≫有感(異文化比較研究の意義:ㅣ菊と刀』を読んで感じたこと)」ㅣ商業文化』 7、p.89.
劉暁峰(2007)ㅣ日本的面孔』 中央編訳出版社、p.119.
崔世广(2005)「序文」唐暁鵬・王南訳、ㅣ菊与刀』 華文出版社.
風月冷呉鈞(本名:焦哲)(2006)「≪菊与刀≫読書札記及由此対中日関系的一点看法(ㅣ菊と刀』および中日関係についての見方)」.
中国社会科学院日本研究所ㅣ日本学刊』 2009年 第1期.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特別企画１

中国における『菊と刀』のヒットに見られる日本文化ブーム

郭連友*

１．はじめに

ルース・ベネディクト著『菊と刀』は近年中国で大ベストセラーとなった。2005年以来、商務印書館をはじめ、数多くの出版社が次々に『菊と刀』を再版、増刷、刊行し、その数は2010年現在約20数種類(英文版も含む)にものぼっている。今のところ、すべての出版社の印刷部数についての完全な統計データはないが、商務印書館発行担当者に問い合わせたところ、商務印書館では2005年に『菊と刀』改訂版が発行され、2006年にはすでに13万冊を印刷するなど、売れ行きが好調だったという。『菊と刀』原作の英語版が刊行された1946年からすでに60年以上も過ぎ、また中国語翻訳の初版本(呂万和等訳、1990年6月、商務印書館)の発行より15年以上も経った今、このアメリカ人文化人類学研究者のルース・ベネディクト氏による日本人・日本文化論『菊と刀』はなぜ中国で急にベストセラーになったのであろうか。本報告では、特にこの問題に着目し、中国研究者の論文およびインターネットブログを手がかりに、『菊と刀』のヒットの背景、ならびにそれによって触発された中国での新たな日本関心及び日本文化ブームのあり方を明らかにする。

＊ 北京日本学研究センター教授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菊と刀」がベストセラーになった背景

「菊と刀」が急速にベストセラーとなった発端の一つには、小泉純一郎元首相の靖国神社参拝(2001年から毎年参拝)への反発や、それにまつわる中日間の歴史認識の相違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た中日関係の緊張があると考えられる。小泉の靖国神社参拝は、当然、中国や韓国をはじめ、第二次世界大戦で被害を受けたアジア諸国から強い反発を招いた。中国国民の中で、小泉氏の靖国神社の参拝は「(小泉が)戦争の非を認めていない」「日本人は戦争被害者に謝罪しない」「戦争を反省していない」などとして受け止められた。それらが導火線となって小泉の言動への不満が一気に噴出し、2005年春、北京や上海をはじめ、靖国神社参拝反対の抗議デモが中国各地で繰り広げられた。その結果、政府首脳間の相互訪問も途絶え、両国の国民感情が傷つけられ、中日関係が著しく冷え込んだ。

日本人は一体何を考えているのか、なぜ謝罪しないのか、何故非を認めないのか、などが当時の一般中国人の率直な反応であった。それと同時に、中国の国民は、「実はわれわれは日本人をよく知らないのだ」、「眼前の状況を打開するために、まず日本人を理解し、日本人の行動を裏付れは性格や思考様式を理解しなければ何も始まらない」などと思うにいたった。このように、日本理解を強く求めようとする中国国民の要請の声が高まる中で、文化相対主義の視点に立脚して綴られた「菊と刀」は再び中国人を魅了し、日本理解に最適な書物だとみなされるようになった。

「菊と刀」で中国人を魅了したものは何だったのか。それらは、ルース・ベネディクトが提示した文化相対主義という視点のほかに、日本人の性格、習俗ないし日本文化の特徴などに関する緻密な分析、そしてそれを支える文化人類学の方法論、さらにその分析に基づいて導かれた結論—とりわけ西洋文化は罪の文化であるというのに対して、日本文化は恥の文化だという論断—などがあげられる。これらのものはいずれも今回の事件の中で、中国人の日本理解に大きく役立ったと考えられる。

中国の地方有力紙の一つである「南方都市報」(本社は広州)の記者陳黎氏は、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中国で「菊と刀」がベストセラーになって、広く読まれた背景について次のように分析している。「「菊と刀」の流行は日本より五十年も遅れた。言うまでもなく、中日関係の緊張が大変重要な背景をなしているが、ほかにもいくつかの要素が考えられる。たとえば、中国社会全体が日本関係の問題に強い関心を持っているのに、しかるべき知識の準備が備わっていない」としている。(陳黎「南方都市報」、2006年3月27日)

3.「菊と刀」現象をめぐる議論

「菊と刀」現象に対して、中国では、研究者をはじめ、一般の読者のあいだでもさまざまな議論が交わされている。中国社会科学院日本研究所教授の崔世広氏は、「菊と刀」の現代日本理解における有効性を高く評価し、次のように指摘する。

> 菊と刀」の刊行からすでに半世紀が過ぎた。本書に提示された日本文化に関する基本的理論や視点が、現代日本文化や日本人の行動様式の理解に重要な価値がある。 菊と刀」は日本民族と日本文化の性格(国民性)を描き出すことに成功した日本人の組織原理でもある 集団主義」と日本人の精神状態である 恥の文化」を浮き彫りにした。(引用者中略)半世紀以上たった今もルース・ベネディクトが提示した日本文化に関する基本原理や観点は必ずしも時代遅れとはいえず、現代日本文化や日本人の行動様式の理解にも価値がある。(引用者中略)中国人は日本民族や日本文化を本当に理解していない。(引用者中略)それが中国の日本文化研究の深化を妨げる原因となっている。中日両国民の相互理解を深めるために、改めて 菊と刀」という名著を真剣に読むべきである(崔世広、「序文」、2005、唐暁鵬・王南訳、 菊と刀」、華文出版社、)

この考え方に対して、中国日本思想史研究者で、同じく中国社会科学院外国文学研究所教授の孫歌氏は「南方都市報」のインタビューにおいて、「今にして見れば、この書の中の分析の多くは、第1に非常に時代遅れであり、第2にあまりに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も浅薄である。畢竟日本語の分からないアメリカ人が書いたものである」2006年3月27日）とコメントし、この書の現代日本理解への有効性を否定している。

上述した記者の陳黎氏はさらに、中国と対照的に、現在日本では「菊と刀」がほとんど関心をもたれていないことについて、「戦後の日本はルース・ベネディクトの描いた当時の日本とはまったく異質なものである」と分析し、「この書の好調な売れ行きは、現在の中国人の日本理解がまだ1946年の段階にとどまっていることの証明だ」と論断し、孫歌氏と同様にこの書が現代日本理解の手がかりにならない旨を述べた2006年3月27日）。

他方、清華大学歴史学系準教授の劉暁峰氏は下記のようにコメントし、ルース・ベネディクトの方法論やその研究成果の現代日本研究への適用の限界と問題点を指摘した。

> 1945年以来、日本社会は大きく変化した。政治面において、アメリカの圧力の下で、戦後民主主義体制が確立され、戦前の軍国主義体制とまったく異なった国家の政治体制が形成された。経済面において、1955年以来、日本は戦争の影から脱出し、高度成長の軌道に乗り、現在世界二位の経済体の地位を獲得している。文化面において、経済の発展とともに、都市化が進み、既存の村落共同体構造がすでに解体し、欧米からの国家観、社会観、価値観、生活観などが日本社会の隅々まで浸透した。これらの変化の多くは実質的なものばかりである。したがって、今日の日本を見る際、ただ単に 菊と刀 を頼りに日本を観察するだけでは甚だ不十分である。方法論から見ても、60年来人文社会科学領域の研究が大きく進歩した。したがって日本を分析、研究する方法をもっと新しくしなければならない。(引用者中略)近年来、中日関係をめぐって、数多くの複雑な問題が現れた。これらの問題の解決策はすぐには見つからないかもしれない。しかし、如何に解決するかを思考する前に、やはり、戦後60年も経った今、日本人は何を考えているのか、日本人はどう行動するのか、という問題をまず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らの問題に対する解答はルース・ベネディクトとかかわりがあるが、ルース・ベネディクトの回答そのものではないはずである。著者ルース・ベネディクトは西洋中心主義の立場を超えようと努めたが、 菊と刀 はあくまでも西洋人研究者の目に映る日本しかなく、しかも六十年前の西洋人研究者の目に映る日本であった。(引用者中略)60年後、 菊と刀 の流行は、東洋人の立場に立ち、また中国人の立場に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立った日本論、そして戦後60年日本社会の進化の歴史を含めた日本論の誕生を呼びかけているように感じる。今こそ、中国の研究者が心を沈めて反省する時期だ。(119頁 中央編訳出版社 2007．8)

さらに同氏は、中国の日本研究が当面両国の膠着状態の打開に何も役割を発揮していない、非実用性に不満を投げかけた(同上)。

このような現象の中、2007年10月、弊北京日本学研究センターでは「海外における日本思想文化研究の歴史・現状・課題―『菊と刀』などの解読を中心に」というテーマの国際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た。研究者の意見を集め、社会に発信することがこのシンポジウムの狙いの一つであった。『菊と刀』(商務印書館版)の翻訳者を始め、約20数名の研究者が『菊と刀』をはじめとする、西洋における日本研究の問題意識、方法論、特徴、問題点および課題について意見が交わされた。また、2008年12月6日、日本竜谷大学で「よみがえるルース・ベネディクト国際シンポジューム」が開催され、『菊と刀』の紛争解決に果たす役割について報告され、議論された。

4.「菊と刀」はどう読まれたか

先ほど見てきたように、『菊と刀』が中国に上陸し、特にベストセラーになってから、さまざまな議論がなされた。評価や賞賛の声もあれば、批判の声もあった。では、『菊と刀』は中国でどう読まれたかという問題に着目し、それを通して『菊と刀』が日本文化理解や中日関係の膠着状態打開に役立つ可能性を考えてみたい。

雑誌『軍事歴史』(2002年4号)に、中国軍事科学院戦略研究部準教授の徐暁軍氏の「ルース・ベネディクトの『菊と刀』を読んで」という論文が掲載されている。氏はルース・ベネディクトの定義した「恥の文化」に言及し、「『菊と刀』により、日本人はなぜ中国の侵略戦争に謝罪しないか、また、ドイツが第二次世界大戦の中で被害国や被害者に謝罪したのに、日本の首相がかえってA級戦犯の祭ら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れた靖国神社を参拝するのはなぜか、などを教えられた」と論じている(徐 2002, 78−79頁)。

また、「商業文化」2008年第7号に、武漢大学政治与公共管理学院所属の唐勝兵氏の論文「異文化比較研究の意義：「菊と刀」を読んで感じたこと」が掲載され、以下の指摘がなされいる。

> 長い間、われわれは日本が第二次世界大戦で戦争を発動したことを強調してきたが、日本人はそう思わないようで、われわれは怒りと疑問を感じ、日本人は恥じ知らぬものだと思っている。しかし、戦争発動についてはそれなりの理由があるのだ。(「菊と刀」の分析の引用を省く)しかし、ここで言おうとしているのは、日本人の言い方には文化的な理由があっても、文化によって導かれた残虐的な行為とは別物だということである。それは絶対許すべきものではない。われわれは日本文化を尊重することを前提に、異文化研究を通じて日本文化の短所を明らかにし、その是正を促すべきである。この書(「菊と刀」)がみなに受け入れられた時が相互理解の始まるときである(唐 2008：89頁)。

同時に反対の意見も少なくない。代表的なものを紹介する。

章益国氏は、「社会観察」(2005年第7号)所収の「距離をおいて「菊と刀」を読むべきだ」と題した文章で、ルース・ベネディクトの日本文化特殊性の強調は結果的に「戦後日本処理のその他の可能性が剥奪されたのではないか。また、日本人の戦争への反省の不徹底性の理由がこの「日米共謀」の日本特殊論に含ま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指摘し、「われわれは距離をおいて「菊と刀」を読むべきである。というのは、「菊と刀」は日本の戦争発動の歴史についての説明であるが、この書自体は日本の戦争に対する徹底的に清算しなかった歴史に与したからである」(章 2005: 62頁)という結論を導いた。

この考え方と類似する視点が風月冷呉鈎(本名：焦哲)という著者に掲載された「「菊と刀」箚記および中日関係についての見方」(2006年5月30日)にも見られる。戦後、天皇の戦争責任を追及しないアメリカの政策に触れながら、「周知のように、残された裕仁天皇は戦争に対して、責任を負っているし、そのまま残された日本の政府機構も戦後日本がだんだん保守化する源となった。つまり、戦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後アメリカが日本軍国主義を徹底的に清算しなかったところに、北東アジアの不安情勢を来たす元凶があり、「菊と刀」は客観的に「悪人の手先」になったのである。この点で、ルース・ベネディクトは咎められる立場から逃れないのだ」(風月冷呉鈎 2006)と、「菊と刀」を批判的にとらえている。

5. 終わりに

以上、報告したように、中国では、「菊と刀」をめぐってさまざま意見がみられるが、「菊と刀」の解読を通じて、現在の日本を理解し、中日関係の膠着状態を打開しようとする意図が強く感じられる。「菊と刀」ブームを経て、中国人は以前と比べて、より理性的に日本や日本人、日本文化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考えられよう。

今回の「菊と刀」に対する解釈と研究は、現代中国人の日本へのイメージが強く投影されたことが特徴の一つとなっている。

また、「菊と刀」ブームに触発されて、現在、中国では日本への関心が空前の高まりを迎えている。日本に関する書物の大量出版や好調な売れ行きは、いずれも例をみないほどである。人々は政治や経済、社会のみならず、日本文化、歴史などにも目を向けるようになっている。

最近、戦後日本復興の歴史を複眼的に考察したジョン・ダワー著「敗北を抱きしめて」(08年9月、三聯出版社)がベストセラーになったのもその証拠の一つである。ベストセラーランキング中で連続一位その現象に見合わせて、二ヵ月後の08年11月28日、中国の日本研究者・専門家による「『敗北を抱きしめて』学術座談会」が開催(中国社会科学院日本研究所と三聯書店共催)。参加者は中国語翻訳者の胡博のほか、李微、孫歌、金熙徳、高洪、趙京華、崔世広、劉暁峰、董炳月など中国で代表的日本研究者約20名。議論の内容を見ても、書名の「抱きしめる」という用語の深い含意—日米関係の構築との関連、日本の戦後民主主義改革の受け入れなどー(胡博)、著者の戦後アメリカ極東政策への批判、マッカーサーの極東地域の共産主義の懸念による北東アジアの政治仕組みが中日和解阻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害の根本的要因、沖縄問題の欠落、アメリカの良識ある知識人にアメリカの覇権主義を反省させる本として高く評価(孫歌)、たま、東京裁判のアジア籍裁判官の欠落およびダブルスタンダードの問題提起、東アジアの戦後体制は裁判の不徹底性と密接にかかわっていると指摘(趙京華)、天皇制の保存は戦後の戦争清算に影響、周辺諸国から懸念(高洪)、更に、歴史上、日本は三回敗北を抱きしめた(大化の改新、明治維新、敗戦)、強者と手を組み、強くなるのが日本文化および日本人の思考様式の重要な特徴だと指摘(崔世広)など、多岐にわたっているが、この座談会は日本研究者が今回の日本文化ブームに迅速にレスポンスし、積極的に意見を発信する代表的出来事となった。(「日本学刊」2009年第1期)

他方で、「菊と刀」ブームを通じて、今までの中国人による日本研究への不満や批判がおき、同時に今後の中国における日本研究がより実用的で、日本理解に一層役立つ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強い要望が一般の中国人から生じている。このような新しい状況に対し、これからの中国における日本研究のあり方—課題、方法論などを含めて—を、じっくり考え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つくづく思うようになった。

＊この論文は日本竜谷大学アフラシア平和開発センター主催「よみがえるルース・ベネディクト国際シンポジューム」及び韓国高麗大学日本研究センター主催「若手研究の未来構築フォーラム—東アジア共同体と日本研究—」での報告を修正、加筆したものである。

参考文献

徐暁軍(2002)「読魯思・本尼迪克特的≪菊与刀≫(ルース・ベネディクトの「菊と刀」を読んで)」「軍事歴史」4、pp.78-79.

章益国(2005)「跳出来看≪菊与刀≫(距離をおいて「菊と刀」を読むべきだ)」「社会観察」7、p.62.

陳黎(2006)「一本叫≪菊与刀≫的学術書還在暢銷≪菊と刀≫という学術書は依然ベストセラー)」「南方都市報」、2006年 3月 27日.

唐勝兵(2008)「跨文化比較研究的意義-読≪菊与刀≫有感(異文化比較研究の意義:「菊と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刀』を読んで感じたこと)」『商業文化』7、p.89.
劉暁峰(2007)『日本的面孔』中央編訳出版社、p.119.
崔世广(2005)「序文」唐暁鵬・王南訳『菊与刀』華文出版社.
風月冷呉鈞(本名：焦哲)(2006)「≪菊与刀≫読書札記及由此対中日関系的一点看法(『菊と刀』および中日関係についての見方)」、2006年 5月 30日.
中国社会科学院日本研究所『日本学刊』、2009年 第1期.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